

Benzene, 1200달러로 143달러 폭등!

FOB Korea 1190-1195달러 형성 ... 미국가격 역시 1252달러로 폭등

Benzene 가격은 7월23일 FOB Korea 톤당 1190-1195달러로 143달러 폭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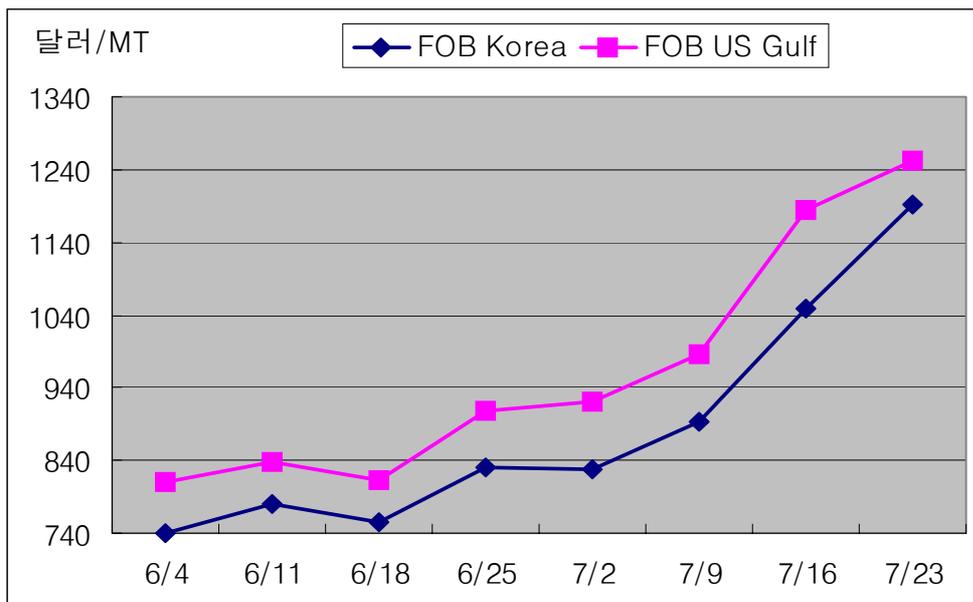
아시아 벤젠 시장은 국제유가 강세와 공급부족이 겹친 가운데 LG-Caltex정유의 파업까지 가세해 사상유례가 없는 1200달러에 근접하는 폭등세를 지속했다.

LG정유가 아시아 벤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연쇄적인 파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.

다행히 LG정유는 7월22일 4개의 CDU 중 2개, 7월23일에는 No.1 Reformer 플랜트의 거동에 들어갔으며, 이번주에는 No.2 Reformer와 3개 BTX 플랜트의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LG정유는 벤젠 생산 중 상당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가동차질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벤젠가격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.

Benzene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벤젠 가격은 7월23일 FOB US Gulf 갤런당 7월 거래물량이 415.00-420.00센트로 톤당 평균 1252달러를 형성해 67달러 폭등했고, 8월 거래물량은 405.00-410.00센트를 나타냈다. 7월 계약가격은 307.00센트에 불과했다.

<화학저널 2004/07/26>